

명승 지정 예고 개요

□ 지정명칭 :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(江陵 鏡浦臺와 鏡浦湖)

□ 지정종별 : 명승

□ 소재지 :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번지 일원

□ 지정가치

- 강릉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 지중추부사 박숙에 의해 창건된 누정건물로 안축의 「鏡浦臺新亭記」記文에 “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비람이 치는 날 놀러 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.”라고 하여 창건목적은 밝히고 있어 역사성이 높음.
- 박숙이 방해정 뒷산의 인월사터에 세웠던 것을 조선 중종 3년(1508)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재 자리로 옮겼고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약 680여 년의 역사성을 지닌 누정건축물이며, 경포호와 더불어 탁월한 역사 문화적 경관성을 지닌 곳임.
- 강릉 경포대는 16세기 이후 지방 재지사족(在地士族)이 주체가 되는 별당식 정자 형태로 전환되는 누정건축 양상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간적 의미를 갖는 정자로서 건축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.
- 또한 창건 당시 이전 시대의 주춧돌과 장대석이 발견되어 훨씬 이전 시대부터 이곳에 정자 형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, 강릉지역 누정 기록으로 신라 성덕왕대 순정공(純貞公)과 관련이 있는 임해정과 술랑선도(述朗仙徒)와 관련이 있는 한송정을 통하여 현존하는 경포대와 더불어 강릉 지역의 누정문화의 시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.
- 관동팔경(關東八景) 중 하나인 경포대(鏡浦臺)는 지형·지질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 석호인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의 빼어난 경승지로 예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로서 명사들이 수많은 시·서·화가 있어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음.
-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,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,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,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, 경관적 요소가 결합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.

- 영조 22년(1746) 김상성(金尙星, 1703~1755)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화원들에게 강원도 절경을 그리게 한 후 친한 사람들에게 시를 짓게하여 완성한 작품이 관동십경(關東十景)인데 그 중의 경포대 그림은 경포대와 경호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감법으로 그린 것으로, 경호는 경포대를 경계로 하여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고 있으며, 호수에는 낚시하는 늙은 어부와 갈매기의 한가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며, 호수와 바다가 경계되는 곳에는 백사장과 함께 현재의 죽도봉이 그려져 있고, 초당과 경포대 뒤흘쪽에는 소나무 사이로 꽃들이 만발하여 봄날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으며, 멀리 강문 너머로 보이는 동해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 모습과 함께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돛단배를 그리고 있어 경포호의 옛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음.
- 정철(鄭澈, 1536~1593)의 관동별곡(關東別曲)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, 경포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, 바다, 호수, 그리고 술잔과 임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임.
-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「鏡浦臺賦」를 비롯하여 숙종 어제시,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은 인문학적 가치가 높음.
- 서거정(徐居正, 1420~1488)의 《동인시화(東人詩話)》 설화 홍장(紅粧) 고사는 경포대에서의 홍장과 강원 관찰사 박신과 애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구전문학의 가치가 높음 곳임.

□ 문화재지정구역 : 16필지 1,038,952.3m²

□ 문화재관리단체 : 강원도 강릉시(강릉시장)

(붙임 2)

사진 자료

○ 경포대(강릉시 사진 제공)



○ 경포호(강릉시 사진 제공)

